

 <b>한국산림기술인회</b> <small>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</small>		<h1>보 도 자 료</h1>			
<b>보도일시</b>	<b>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</b>			<b>총 2쪽</b>	
<b>배포일시</b>	<b>2025. 12. 9.(화요일)</b>	<b>담당부서</b>	<b>일반사업본부</b>		
<b>담당부서장</b>	<b>전제은 본부장</b>	<b>담당자</b>	<b>노다은 사원</b>		

**“ 기술인 위상 제고 ”**  
**한국산림기술인회-한국건설기술인협회 ‘ 맞손 ’**  
 - 상호협력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 ... 기술인 전문성 강화 등-



사진 = 9일 한국산림기술인회-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진영문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(우측)과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(좌측)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-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산림기술산업 분야의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.
- 한국산림기술인회는 9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.

- 이번 협약은 산림기술인과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,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기술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한다는 목표다.
- 이날 협약식에는 진영문 한국산림기술인회장과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해 건설·산림 기술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을 공식화했다.
-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력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보 공유와 일자리·취업 지원사업 콘텐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.
- 특히 건설·산림기술산업의 대외 이미지 개선과 미래 인재 유입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.
-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은 “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해 산림과 건설 분야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”며 “이번 협약으로 경력관리 고도화와 일자리·취업 지원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” 고 전했다.
- 진영문 한국산림기술인회장은 “양 기관의 경험과 역량이 더해지면 산림기술과 건설기술 분야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”이라며 “안전한 현장 조성과 기술인의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